

## 광주교육청 고교배정 이번엔 '11지망 꼼수'

### 내년 희망학교 11곳으로 늘려... "책임 떠넘기기" 비난 성적 반영 강제배정도 그대로... 부작용 되풀이 예고

광주시교육청이 무더기 강제배정 사태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샀던 '성적 반영' 광주지역 고교 배정 방식을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하기로 해 또다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올해 7개 학교였던 선택 학교 수를 내년에는 최대 11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 배정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29일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고입 배정 방식의 선(先)지원·후(後)지원 비율과 방식 등은 올해 기본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제 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선택권을 넓혔다.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중학교를 기준으로 한 배정가능 고교 가운데 선택하는 후지원에서 60%를 추천·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선지원에서 2개교를 선택하고, 후지원에서 5개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후지원에서 우선 순위를 없앴고, 중학교별 배정가능 고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1~4개교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고교가 밀집된 남부지역 중학교의 경우 현재 7개교에서 최대 11개교까지 늘어나게 된다.

나승철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기회 부여,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경우 현재 7개교에서 최대 11개교까지 늘어나게 된다."

교에 대한 출림 현상 방지를 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택권 확대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강제 11개 학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강제배정이라는 멍에를 벗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배정가능 고교가 적은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선택권이 좁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첫 도입해 강제배정 사태를 낳은 성적등급에 의한 일괄배정은 내년에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성적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근거리 배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의뢰, 성적등급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14일 내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프로야구 뜨거운 출발**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린 지난 31일 야구팬들이 광주 무등경기장 관람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지난 30일 개막전에 이어 이날도 1만2500석이 이를 연속 매진됐다.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며 개막전 8연패에서 탈출한 '호랑이 군단' KIA는 올 시즌 업그레이드된 공격·수비·주루 3박자를 바탕으로 'V11'에 도전한다. ▶관련기사 14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특별기고

복간된 월간 '예향'을 받아보니 얼어붙었던 세월의 강이 풀리는 듯 가슴 한켠이 빠르게 차오름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도 아픈 상처처럼 기억되는 80년대 초 '예향'을 창간할 때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던 발간 첫 머리글이 30년이 지난 오늘 새삼스럽게 목매어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선조들의 고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전라도가 다른 어느 지역 사람보다 남모르는 고통과 소외,



**최승호**  
이 사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온 고장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어떤 역사학자는 전라도를 '갈과 거문고'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같은 물건을 자르는데 쓰이지만 불의(不義)를 끊는 상징이 된다. 이것은 현실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요, 터져 나오는 정의

## 다시 보는 '멋과 열의 꽃'

- 월간 '예향' 복간에 부처

그로 인한 의분과 자기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 새삼 복판에 오른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 살고 여유만만하게 권세가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고장이라면, 전라도 사람들의 밑바닥 어디에 그토록 끈끈하고 진한 사상적 응어리가 고일 수 있었을 것이며 또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카랑카랑한 소리로 저 하늘 끝까지는 대까지 울분과 저주와 해학의 관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었을 것인가.

한 폭의 산수묵화(山水墨畵), 한 두 줄의 시문가사(詩文歌辭),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그것은 하나의 몸부림이며 오랜 정한(情恨)의 긴 숙구침이 아니던가. 이러한 몸부림과 숙구침이 없었던들 오늘에 이르지 정신의 맥이나 문화유산은 찾을 길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 우리 고장을 '예술의 고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연유의 깊은 바닥에는 이런 울분과 자기정화의 서글픔이 담겨 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거역(拒逆)이요, 반항이자 주어진 삶에 대한 재발견으로써 새로운 자기 창조인 것이다. 우리 전라도에는 적어도 이런 정신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에 '예향'의 금지를 늘 감의 발라도... 거문고는 풍류이며 평화요 조화다... 그리하여 불의를 칼로 끊고 끊어낸 것을 다시 거문고로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예향다운 전라도의 '멋과 열의 꽃'이다."

"칼로 상징되는 저항정신과 '거문고'로 비유되는 감성적 여유야말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할 소중한 가치에 틀림없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땅에서 또다시 오늘과 내일을 잇는 문화의 꽃을 피워내려야 하지 않을까."

전국 어느 곳보다 향토성을 지닌 우리들 고향-전라도의 문화는 곧 바로 우리들 삶의 꽃이다. 일찍이 미국의 비평가 싱클레어가 갈파한 대로 '모든 예술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가 저술한 '힘의 예술'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깨닫는 사람만이 앞서가며 앞서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낡은 가치관에 서 벗어나 민중의 시대에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값진 문화이다."

오늘 월간 '예향'의 복간을 보면서 많은 독자와 더불어 11년 만에 다시 피어난 우리를 '삶의 꽃'이 무성하기를 기원한다.  
(전 광주일보 사장)

## B형 2013년 수준, A형은 더 쉽게

**2014 수능 11월 7일 시행... 국·영·수 첫 수준별 시험**

오는 11월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은 국어·영어·수학 영역에서 처음으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누어 출제된다. 이에 따라 영역별 만점자 1% 유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60%를 유지된다. (관련기사 6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국어·영어·수학 영역에서 처음으로 수준별 시험이 도입된다. 수험생은 쉬운 A형과 기존 수능 수준의 어려운 B형 중 선택해 응시한다. 어려운 B형은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국어와 수학을 동시에 B형으로 고를 수 없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문항 수 기준)이며, 개념과 원리 중심 출제가 강화된다.

김경훈 평가원 수능출제본부장은 "B형은 작년·재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고 A형은 조금 쉽게 낸다는 것이 출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선택형 수능으로 응시자가 나뉘는 만큼 올해는 예년같은 만점자 1%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어와 영어의 문항 수는 45문항으

로 5개 문항이 줄었지만 시험시간은 각각 80분과 70분 그대로다. 국어 듣기평가는 없어지고, 영어 듣기평가는 17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3과목씩이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2과목씩, 직업탐구는 1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기초 베트넘어가 추가돼 9과목으로 늘었다.

성적표는 11월27일 통지되고, 영역·선택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평가원은 6월5일, 9월3일 치러지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통해 A, B형의 난이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6월 모의평가는 4월 1~11일 응시 신청을 받고, 성적은 6월27일 통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本 社 人 事**

- ▶ 曹庚完 서울지사 광고 영업본부장
- ▶ 姜喆壽 출판마케팅국장 (4월 1일자)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pinkcampaign.com

##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입력하세요.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양말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 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 HERA · 케토름 · 르까프